

주체적 삶을 위해 텔레비전을 바로 보자

언론학자 강준만의 텔레비전 읽기



강준만의 텔레비전 비평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선이해가 필요하다. 그는 이른바 엘리트 패거리문화와 싸워온 2류들의 대변자고 현실이 결여된 이론을 지독히 혐오한다. 강준만의 텔레비전 읽기는 이 두가지 대전제를 깔고 있다. 텔레비전에 대한 그의 입장은 학자들이나 저널리스트들과 쉽게 구별된다. 그에겐 텔레비전 혐오증이 없고, 문화적 취향에 따른 선택과 배제가 덜하다. 강준만의 텔레비전 비평은 대상에 대한 애정과 객관적 거리, 구체성이 동시에 담보된 현장비평이며, 지식인보다는 대다수 아마추어 시청자들을 염두에 둔 글쓰기를 실천한다.

텔레비전에 대한 이중적 태도 버려야

강준만은 지금까지 다섯권의 텔레비전 비평집을 펴냈다. 텔레비전을 비중 있게 다룬 대중문화평론집과 공

저까지 합하면 모두 여덟권이다. 이 책들에서 일관되게 탐구되는 주제는 텔레비전의 구조와 속성에 대한 이해다. 강준만은 텔레비전의 대중문화적 지위, 운영방식, 이데올로기적인 기제, 경제적 의미들을 밝혀내고 텔레비전의 심층 구조를 밝히기 위해 개별 프로그램과 정책을 분석한다.

강준만의 텔레비전론을 대변하는 책은 《텔레비전을 위한 변명》(개마고원)이다. 이 책에서 그는 “한국 TV문화의 이중성”을 해부하고 있다. 한국처럼 텔레비전을 열심히 시청하면서 동시에 매도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텔레비전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오락으로만 소비한다고 비판한다. 그에게 방송개혁보다 시급한 것은 “방송을 보는 철학과 시각의 변화, TV를 낭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의 확산”이다. 그리고 지식인들의 방송기피증과 신문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방송 비판을 공격한다.

사실 강준만이 처음부터 텔레비전에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1992년에 나온 그의 첫 방송평론집 《오즈음 TV 불 만합니다》(한울)를 보자. 여기서 그는 텔레비전이 “오락적인 가치를 대변하고 통제하고 유통시키는 ‘사령탑’”이며 “중앙집중식 커뮤니케이션 구조하에서 자본의 지배를 받는 테크놀로지”라고 규정한다. 경제와 문화를 통합한 텔레비전이 대중을 단자화시키고 이는 결국 모든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자본의 포용력에 맡기는 ‘쇄락의 정치’로 나아간다고 비판한다.

연이어 나온 《권력은 TV에서 나온다》(이웃)에서는 ‘KBS사태’와 ‘SBS-TV 개국’에 이르는 방송계의 진통을 통해 권력과 텔레비전의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텔레비전이 편견을 동원하는 권력기구로서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지만 반민주적 구조가 그것을 은폐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된다고 지적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것은 텔레비전의 권력구현 방식이다. 방송조직의 통제구조, 권력화된 방송의 ‘여의도 패권주의’, 방송민주화운동의 태생적 한계를 통해 민주적인 사회상에 역행하는 복잡다기한 권력으로서 텔레비전을 조명한다.

텔레비전은 단순한 바보상자가 아니다

이런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TV의 반역》(장백)에서 ‘반역’이라는 은유를 통해 강준만식 개념화 과정을 거친다.

그것은 테크놀로지 자체가 자기강화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그 뒤에 인간의 권력의지가 숨어서 작용한다는 인식이다. 특히 텔레비전의 보도프로그램과 오락프로그램이 공정성과 리얼리즘을 모독하고 정치가 유희로 전락한 나라들의 텔레비전 이념을 맹목적으로 모방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그는 이런 부정적 인식을 뒤집어 “인간에 대한 TV의 반역은 TV가 이데올로기 논쟁의 한복판에 들어설 가치가 있다는 것의 확인”이라고 말함으로써, 텔레비전 분석을 통한 생산적 논의의 촉발을 주문하기도 한다.

《대중문화의 결과 속》(개마고원)에 오면 강준만은 미국에서 수입돼 한국적으로 토착화된 텔레비전 지배문화의 작동원리를 비교적 균형있게 다각도로 보여준다. TV 시청율의 독재, 프로그램 편성에 가해지는 두 상반된 힘인 시장 논리와 사회적 간섭, 텔레비전의 소아주의와 시청자 허구론, 리모콘에 수동적으로 길들여지는 시청자, 광고의 독재,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에 미치는 영향 등 한편의 드라마나 뉴스가 기획되고 시청되기까지 정형화되다시피 한 제작과정을 명료하게 드러내 보인다.

강준만은 텔레비전에 대한 대중의 무감각을 물고기가 물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비유한다. 텔레비전은 결코 인간을 위해 멈춰서지 않는다. 하지만 텔레비전과의 타협은 불가피하다. 최소한 인간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을 의식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강준만의 요구사항이다. —강성민기자